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3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9. 2(금) 14:00~16:50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제33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지난 8월 31일부로 명예 퇴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대신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1992년 7월 1일에 입사하고 사무처장의 일을 대신해 오던 우리 고참 직원의 술회 같은 것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문예진흥원에서 위원회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전환 이후로 우리 위원회가 겪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한 소회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가 넘어야 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6기부터 7기로 이어오면서 자율운영협약 체결 등 위원회 전환 이후 이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내용들도 짚어 주었고요. 또 위원회의 한 운영주체로서의 사무처와 위원회 간에 의사결정 행정집행 간 관계와 관련한 부분도 차분하게 짚어 주면서 위원님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인 제가 요지를 대신 전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예술창작본부장이었던 송시경 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9월 1일부로 임명하여 오늘 선임 본부장으로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업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창작본부장으로 옮겨감으로 생긴 예술창작본부장 대행은 지원총괄부 업무와 함께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예술창작본부장 업무를 선임 부장으로서 대신하게 되었음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임명의 근거는 사무처운영규정 제4조에 사무처장의 부재 시 선임 본부장이 그 업무를 대리한다는 것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송시경 본부장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송시경입니다. 아마 길면 5~6개월, 짧으면 4개월 정도로 사무처장 직무를 대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남요원 상임감사님이 회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윤희 정책혁신부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1인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회 전차(前次) 회의는 대면회의 1회와 서면회의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제337차 현장 전체회의에서는 3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2건이 수정 의결, 1건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된 제338차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셔서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결과 접수를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보고사항으로만 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결사항 없이 곧바로 보고사항을 보고받으신 후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위원님들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2023년 공모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중점개선 방향논의 안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공모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중점개선 방향논의를 보고드린 후 안건별로 소관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를 진행하면서 같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8개의 보고사항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요.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 공모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중점개선 방향논의(안)을 지원 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2023년도 공모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회선을 점검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어도 괜찮을지 회선을 점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안 들리거나 화면에 문제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회선의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현저히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시면 즉시 회선을 개선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총괄부장은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붙임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붙임자료를 보시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 현황 및 주요 추진일정, 주요 개선사항 그리고 사업별 주요 개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올해 대비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중점적인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별도의 PT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내드린 보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구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시로 추가 보완을 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자료에 없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총괄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모가 나갈 때 총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축이 장르로 구분되어 있고 세로축이 공모시기 그리고 다시 장르로 구분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장르를 찾아서 어느 시기에 공모를 하는지 보고 그 안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안으로 제시한 2023년도 공모사업 총괄표입니다. 위원회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기 보다는 전년도에서 보셨듯이 기존의 사업들이 가짓수가 많고 파악하기 힘들어서 현재 구성된 사업들을 지원신청 하신 분들이 최대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사업구조나 구분상의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괄표 상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제일 위의 '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사업들이 발표 이전의 단계를 지원하는 과정 지원형 사업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설명자료에서는 그 준비지원들이 각각 개별사업의 별도 트랙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준비가 있고 어떤 사업들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는 신청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르코 스타트’라고 하고요. 명칭은 추후 변경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안이고요. 맵핑 되어있는 개별적인 사업들도 사업명은 일부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사업은 올해의 사업들이 확정되어 있는 형태라 이 구조를 전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자들이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또는 혼동하는 부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청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기조의 요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다년간 지원이나 경력단절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균형지원제도와 같이 기관 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기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조를 유지하고 반영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의 규칙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공통된 기준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되는 부분은 크게 공모와 심의로 나뉘어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 제시된 부분들은 작년 공모계획에서 보고받으셨고 공고가 나갔던 것처럼 이 내용이 그대로 공고로 나갈 것은 아닙니다. 사무처에서 그동안 고민하고 검토했던 주요 이슈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공고가 나갈 때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용어가 아닌 번역된 형태로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모 시기의 일원화입니다. 공모 시기 일원화를 통해서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 시기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정시공모 1차, 정시공모 2차, 별도 공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수의 구분은 저희의 사정, 행정적인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거나 사업을 공모하는 위원회의 입장이지 신청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 사업을 별도의 시기에 공모할만한 특별한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이번 정기공모로 묶어서, 그러니까 향후 정시공모, 별도 공모 등의 이야기가 없도록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지속되면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10월 초에 안내되는 바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단, 그 경우라도 현재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으로 문학집필공간의 세부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의 계획이 미확정된 사업들만 향후 별도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모두 정시공모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기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학의 아창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별도 공모로 했던 사업들을 공통적으로 정시공모 때 공고를 하고 접수 기간을 늦추는 형태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의 통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각각의 사업들이 준비지원 형태의 트랙을 별도로 추가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준비지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사업안을 별도의 트랙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 전체를 ‘아르코 스타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고가 나갈 때는 단일한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준비지원 형태의 사업들은 모두 통합하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제시된 모든 사업들을 동일한 심의기준, 동일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것까지 검토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각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고 지원금의 규모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체 공고가 나갈 때 지원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하는

선까지 가고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항목의 확대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제시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별도의 표를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예산 비목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신청을 할 때 편성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요. 기존의 문제점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은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은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없고요. 여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가능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다보니 결론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항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단, 각각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비고 항목에 “인건비는 10% 이내로 제한한다.”와 같이 단서 조항을 구성하여 제안하고 편성은 모든 항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현장 설명회를 못 했었는데요. 사실 설명회의 의미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 설명회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설명회에 오셔서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각 사업별로 각각 부스를 만들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담당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담당자에게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는 부분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것을 부활하려고 하고요.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지역까지..... 사실 직원들이 상당수 투입되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지원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고려해서 지역까지 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요. 지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 바로 바꿀 수가 없어서 올해는 지역까지는 어렵고 전체 사업설명회만 위원회 극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신 지역을 순회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설명회 이후 사업별로 질의응답을 받는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9월 30일 전체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주 10월 7일까지 각 사업별 설명회에 대한 온라인 참관신청과 함께 공고를 보시고 일주일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인 10월 13일과 14일에 거쳐서 각 사업별로 취합된 질의사항을 FAQ 형태로 정리하고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한테는 직접 궁금하신 점을 문의받아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원 기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균형지원제 확대입니다.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업 같은 수월성 중심의 사업, 그리고 창작지원사업에는 지역균형지원제를 미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공모사업부터는 지역균형지원제는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추가로 청년예술가 첫 지원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의미는 기존에 사업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업별로 적용의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사업도 있고, 어느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위원들께서 저항을 표시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적용되는 사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일부 사업들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공통 적용하고 심의를 통해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안을 반복된 심의를 통해 합의를 만드

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실제로 제안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조금 더 보완된 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재원의 영역이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최초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를 더 구현하고자 한다면 지역균형지원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은 신청비율 대비 선정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다 아시는 28% 이상을 선정될 수 있도록 의무 적용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다년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고 계신 사업들이 다년간 지원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부터 기존 단년도에서 다년도로 확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 지원입니다. 준비에서 발표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준비지원의 사업들이 그전에 하고 있던 발표단계의 사업과 연계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경우에는 실제 발표의 형태에서 경쟁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는 발표지만 마이너리그의 형태처럼 준비지원으로 지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창작이 그냥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단계별로 준비해서 단계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준비지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던 사업들은 발표 지원에서도 가점 형태의 우대를 한다거나 사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할 때 자격 요건에 어떤 경력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기간을 2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시각예술 분야의 우수전시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전시를 2회 이상 기획·추진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분들은 2년을 더 확장해서 최근 7년간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경력단절에 해당 범위는 임신, 출산, 육아, 병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보상 단가기준입니다. 명확하게 모든 지원에 대해서 단가를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고료, 미술창작대가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연분야의 창작진 사례비 평균 지급단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공유 및 확산입니다.

고질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들이 받는 오래된 비판 중 하나가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지원단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수요에 따른 워크숍이나 선정단체 간 네트워크, 아니면 결과물을 같이 공유해서 성과를 확산하는 기회들을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부담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공고에서 저희가 제시할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사업마다 전체 큰 틀의 기준이 없이 제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적용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가지 기준인데요. 준비지원에 해당하는 형태, 청년예술가 그리고 공공형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을 자부담 제외 기준으로 만들어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 관련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심의 금지입니다.

심의의 충실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위촉기간 내 타 심의 금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별도공모를 제외한 정시공모의 경우 총 15인의 심의위원이 동시에 심의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2월 7일에 심의, 12월 9일에 심의를 하는 등 동시에 심의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200~300건의 자료를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공모에서는 중복해서 심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정시공모 심의회수를 1번으로 하고자합니다. 심의의 충실성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는 현재 저희 심의위원 후보단에 총 1,911명의 심의위원들이 후보단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심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분이 3분의 1이 안 됩니다. 31%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을 할 때 심의위원 경험이 있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도 중복심의금지의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담심의 정비입니다.

전담심의위원회제가 처음 생길 때는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3단계 이상의 단계별 지원심의였는데요. 이게 추가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의위원 풀에 없어도 한다.”라는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말은 되게 자의적인 판단이라서 적용기준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인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적격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혼란을 빚고 있는 자의적 판단을 제외하고 3차 이상의 단계별 심의에 한해서만 전담심의위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사/중복 기준입니다. 이번 심의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차와 2차, 별도가 없이 한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된 사업과 유사/중복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준비지원 형태의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물을 알 수 없는 경우들,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기획 차원의 단계가 많아서 중복과 유사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요. 적어도 해당 사업들의 심의위원들은 다시 한번 전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필수서류 강화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일 괴로운, 일상적으로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청했던 사업이 교부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거창한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교부를 할 때는 상당수가 축소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필수서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저작권 동의서 부분인데요. 실제로 올해 별도공모의 경우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라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는데요. 사전에 저작권 동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발표하는 경우에는 기존 작품의 영상자료와 같이 선정된 이후에 사업수행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일부 보완하고자 합니다. 총 15가지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사업들이 통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이나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의 경우에는 기존 ‘국제교류지원’ 한 사업으로 모두 통합하려고 하고요.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도 지금 청년이 2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1개 트랙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은 대

본공모에 포함을 시켜서 대본공모 안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공연의 창작실험활동지원과 사전연구지원이 나뉘져 있던 부분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경우 명칭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준비했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나와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그리고 사전에 안내해야 할 부분들을 포함한 홍보를 진행하고 9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의결안건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23일에 의결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 및 공고가 30일 기준으로 발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날짜는 3개 일정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11월 초까지 접수해서 12월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마지막 위원회 회의에서 사업 선정결과를 의결해서 발표하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가 너무 많아서 크게 바뀌는 주요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을 먼저 보고받은 후 논의하고 9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완성하겠다는 의결 수순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사전의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시어 사전의견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 의견 중에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면 논의 수순은 별도로 정하되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예술계가 창작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으니 통상 3년간 활동실적을 5년 활동실적으로 완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을 완화해서 국적자로 한정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한 한국거주 예술가는 누구나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자는 요청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서도 제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 2023년도 창작지원 사업은 별도로 하되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에 다원예술 분야 비평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자구에 관한 것으로 오류라면 수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제시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을 내 주신 것이니까 담당부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말씀드린 대로 자격 또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잘 안 들립니다. 온라인은 괜찮다고 확인하였는데 회의실에서는 소리가 너무 안 들립니다. 회선을 다시 점검해 주세요.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선 점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가능한 한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대로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검토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문예진흥법 또는 보조금법상으로는 외국인의 경우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1안과 2안을 보면 가능한 것은 결국 2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1년 이상 예술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신청자격.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국민 플러스 모든 외국인. 불법체류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보다 가치판단 문제가 될 텐데요. 비슷한 사례가 최근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재난의 상황인 경우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지원된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F5, F6로 영주권자 또는 한국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에게 지원할 때 기존 수혜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구나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준비가 없으면 저희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안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수많은 유학생들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세대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예술인들, 예술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요.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논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회선 불량)

**박종관 위원장 :** 회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논의가 끊어진 곳부터 다시 논의하자면, 지원사업 신청 완화와 관련해서는 3년 활동 또는 5년 활동실적을 적용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어떤 사업을 특정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3년으로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5년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5년으로 하게 될 때 어느 해에 한정해서 할 것인지와 관련된 실무적인 진행 수준이 필요하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갈 방향을 정해 주시면 논의하고요. 중간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9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해서 확정 짓는 수순으로 갈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의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 거주자 예술가 전체로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것이죠. ‘대폭 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대폭 완화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안 정도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을 2가지 주셨는데요. 1안의 경우 1년 이상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2안이 적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의견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여기까지 실무의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제가 1안과 2안으로 드린 이유도 정준화 부장님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적이 없는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연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정준화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주민 예술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드렸던 인원에 대한 것. E6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의 숫자와 유학생의 숫자는 법무부를 통해서 아는 자료로 말씀드린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 2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2안으로 가는 게 제일 표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안에 몇 년 이상이라고 넣은 이유는 저희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게 될지에 관한 것 때문에 제가 1안을 만든 것이구요.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사람들로 하는 것도 있고요. 1년에서 2년 동안 거주한 자로서 규정하는 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적으로 1안을 지금은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표준은 2안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기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1안으로 하고 활동이 아니라 보통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노동비자가 아니라 고용 허가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비자 자체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정도 거주를 했느냐와 그 비자를 보면 이 사람의 주업이 예술활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2안의 표준이 조금 걱정되고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면 저는 중간단계로 1안에 “1년 이상 거주”나 “2년 이상 거주”라는 규정을 넣어서 열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하자면 지금 개의안을 내신 건데요.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사무처 쪽의 이야기를 더 듣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대한민국도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아까 정준화 부장이 보고드린 부분은 추진하게 된다면 예술 현장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전에 재외교포와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도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 정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문제고요. 다른 또 하나는 상호주의원칙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즉 상대방이 해 주면 저희도 해 주는 것으로요. 그것 말고 예술위원회 신청 중에 20%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 80%의 예술인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술위원회의 방향성에는 맞지만 의결만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했던 것은 현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보고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다원예술 장르라면 다원예술 장르로 정하고 늘려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보고드린 것을 제가 요약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가는 방향은 옳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위원회가 의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른바 정산과 관련하여 꼭 지켜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예술현장과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큰 틀로 옳은 일이니까 시범사업 같은 것으로 정해서 해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어떠한 네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의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무 쪽에서 조금 더 의견을 보탬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중요한 것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시공모 전까지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7기 위원회가 예술인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분들 관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내용에 관해서 위원회가 논의하고 그것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조금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다양한 방식의 소통 과정과 9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사무처가 준비한 안을 받아보시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논의해야 할 내용이 심의위원 추천할 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루핑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하시면서 함께 설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5명, 위원회 5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그 10명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을 우선 제외하고 그 제외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B그룹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제안해 주셨고요. 취지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의 성격상 이분이 꼭 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우선순위가 제일 밑에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적용방식을 고민하다보니 오히려 원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을 운영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모두 전문가라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추천할 때 등급을 나눠서 “이분은 상위권에 해당하는 전문가.”, “이분은 그 밑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가.”라고 나눠서 인식하는 게 기본적으로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추천을 했을 때 15명까지 사무처와 위원 간 하는 경우도 있고 20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제일 적임자라고 해서 이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이 1~2명이 있기 마련인데요. 전체를 무작위로 하다보면 잘 안 맞는 경우를 제가 경험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하지 않지만, 저는 이번에 지원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을 여러 분야에서 추천하면서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요약하자면 좋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클래스를 나눠서 후보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실무 쪽의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박경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으니까 최종적으로 좋은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쪽으로 오늘 논의는 결론을 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심의위원과 관련해서는 2개의 진일보한 정책들이 나온 겁니다. “심의위원 간에 중복선정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에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되고 양질의 심의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전담심의라는 부분은 새롭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한번 손봐서 축약시키기도 하고 특성화시키기도 해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양질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 등을 심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저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이 문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원예술창작활동지원의 지원금이 당초 설계처럼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니

비평과 관련된 부분은 비평연구활동지원 사업에 다원 부분의 틀을 열어주면 어떠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022년도에도 다원예술 분야가 공연예술비평지원으로 지원신청을 하게 열어놓았고요.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아르코 스타트 사업이 뭐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아까 총괄표에도 공연비평사업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도록 그림도 그렇게 그려놓았다는 것을 부연 설명드리고요. 아르코 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지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사업에 흩어져 있는 준비지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명칭을 그래도 쓸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음 질문까지 말씀드리면, 사업명의 오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외에도 전체적인 내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있고 사업명 등이 일부 변경되어야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오타도 함께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7쪽의 예술창작지원이 지적한 대로 맞는 것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니까 수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흥태림 위원이 질의하신 전년 대비 56%로 크게 감액된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가 내년 연도 안에 추경 등의 방법으로도 예산이 복구되거나 복원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사업의 어려움을 현장에 설명하고 공론화를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2022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기조로 요구받았고요.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은 56% 이상이 감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대안 사업으로 저희가 지역거점 제작극장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누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꼭 진행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유통지원사업과 유사중복성이라는 의견을 통해서 결국 사업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동 사업에 대해서 6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어 2023년도에는 150억 정도로 정부 부처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현재 지역뿐만 아니라 예술현장과도 사업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고요. 본 사업은 정시공모 때 사업이 아니고 별도공모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인데 그 전에 현장소통 소위원회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사업의 예산 감액 현황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의하신 홍태림 위원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메신저 창에 추가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 질의의 핵심은 논의할 시간과 방안이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2가지 모두 부장의 설명 속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논의와 관련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역시 의결 전까지 의견을 내시면 실무 쪽에서 대안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시각예술창작산실 민간전시 공간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이것은 나주 본청에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이 자리하고 있죠?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태림 위원님께서 미리 저희와 상의해 주셔서 내용은 설명 드렸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간지원 참여 경험 있는 단체에게 이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홍태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민간전시공간사업 같은 경우 1년 이상 공간을 운영한 사람들은 신생형 유형에 신청할 수 있고요. 3년 이상 신청한 사람들은 성장형 유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저희 예산이 동일한 상황에서 쿼터를 적용할 수도 없고, 실효성이 부족하고 요행이 너무 많아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모두 1년 이상 운영한 분들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홍태림 위원님께서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한 공간단체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의 현재 상황상 오디오가 안 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펜찮으시면 의견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먼저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은 모두 답변이 되었고요. 혹시 서면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전의견서를 내셨어도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역시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조금 전에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를 다원예술 분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 분야로 하는 것보다 아르코 스타트 사업이 창작준비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니까 그 사업에서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식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즉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내 거주를 적용할

때 아르코 스타트 사업은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검토한 이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검토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우리가 논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산이라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법적 토대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을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정기공모(안)을 보고드리면서 이른바 시기를 통합한다. 심의하기 위한 공통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전 분야의 준비지원이나 본 지원 혹은 뒤의 후속작업 등 장르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지원체계를 만들어본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인 다년간 지원이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혹은 경력단절 문제 등이 6기 위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과인데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정착시킨다. 그리고 지역균형지원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본다. 그리고 심의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개선안이 오늘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잘 숙성시키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서 9월 위원회 회의 전까지 안을 잘 다듬어서 2023년도 공모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자격기준 문제나 국적확대 문제, 심의제도 강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금보다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말씀을 못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공모사업 개선안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년지원확대나 단계별지원, 자부담 기준은 정해진 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지역균형지원제 확대가 개선안에서는 공통 적용인데요. 지금까지 공통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 제도는 동의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현장 설명회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면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설명회를 하시는 이유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분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시어 세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부장이 조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지원제도 그렇고 대면 설명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지역설명회 문제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지역균형제와 관련해서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 적용이라는 것은 의무적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 나오도록 의무적용 해야 하는 것인데요. 공통 적용이라고 하면 일괄 적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에서도 심의위원들에게 “이것이 예술위원회 기본방침입니다.”라는 방향성 정도로 제시해서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난관을 겪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질의응답이나 개별적으로 갖는 시간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지역설명회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게 힘들면 줌으로 할 수 있으면 직접 설명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예술가 활동을 하며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줌으로 해서 받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제 보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설명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설명회 이후 사업별 영상 시스템을 통해 설명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전체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을 먼저 받아서 다음 주에 각 개별 사업 별로 질의응답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고 영상 시스템으로 공급하신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중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장도 한 말씀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하게 할당제처럼 되면 이른바 한국예술의 수월성을 강하게 지켜야 할 우리나라 문예진흥기금의 창작 수월성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오고 예술현장에서도 늘 나오는 지적이어서요. 저희가 지역균형지원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예술지원기구이니까 어느 특정한 영역은 반드시 균형지원이 되도록, 그리고 창작수월성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의 지원금은 그 내용들이 강조되도록 운영할 수 있게 제도를 잘 짜보겠습니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이 사안은 여기까지 접수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논의 중에 위원님께서 접속하신 것 같은데요. 정유란 위원님께서 15시 22분에 접속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22분 정유란 위원 온라인 접속)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22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 결정의 건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와 계시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나주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고사업으로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번에 걸쳐서 도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2번째 차수의 선정결과입니다. 여기에 대상인 도서는 발간 기간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7페이지에 나오는 사업내용은 전체 사업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추진경과를 보시면 6월에 15일간 공모를 접수 받았고 1,133종의 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

다음 페이지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7개 분야에서 43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심의 진행해 주셨고요. 심의위원 구성 현황과 세부 명단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는 모든 도서를 읽으셔야 하는 심의인 만큼 심의기간이 길게 걸립니다. 7월과 8월에 심의가 되었고 그 결과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190종을 선정했고 장르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살펴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로 총 190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사별로 중수나 지역출판사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진작가들 생애첫발간도서 선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바로 3차 공모가 될 예정입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평과 선정 내역은 붙임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사업이니 만큼 지원사업에 준하는 정도의 논의와 의결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결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보고는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필 위원 :** 서울, 경기 중심으로 99.9%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수월성 부분도 심사위원들의 저항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혹시 문학 나눔사업에 일정한 쿼터를 지역출판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역작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안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이 사업이 2017년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출판사, 지역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문학 출판하고 계신 출판사나 그 출판사를 통해서 작품집을 발간하는 작가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적이 좋은 도서를 선정해서 전국에 있는 보급처를 통해서 읽히고 확산·확대 시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는 되도록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정 저희가 다른 도서들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점해서 선정하는데 동점자 우선순위에 가장 최우선 순위는 신진작가 그리고 두 번째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나눠서 비수도권에서 발간된 도서를 우선한다는 우선 적용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심의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내용은 만약 쿼터제를 운영한다면 선정되는 도서의 수준에 편차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매번 지적해 주십니다. 올해 사업은 1번 남았고 내년도에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의견수렴을 하면서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완책을 조금 더 다각도로 의견도 듣고 고민해서 방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질문을 드릴게요. 생애 첫 도서에 대한 심사를 분리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셨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통합해서 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선정된 결과 선정작품 책 속에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신청할 때 신청 출판사에서 첫 책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도 혹시 누락이 생겼는지 예비 행정심사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러니까 생애 첫 책으로 신청하는 건 그 안에서 경쟁을 합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렇지 않고요. 전체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통합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책이라고 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세울 때는 첫 책을 어떻게 지원하려는 취지가 아닌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첫 도서를 쿼터를 두고 배분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점자인 경우 최우선순위로 신진작가들의 첫 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토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첫 책의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책을 낸 신진작가들이 새로운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좀 혼란스러운데요. 생애 첫 도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한 것도 없고 첫 책으로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생애 첫 책이라고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인센티브를 심정적으로 준다거나 하는 등 주관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심의자료는 도서와 도서 개요서,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첫 도서인 경우에는 첫 책이라고 명기를 해서 검토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첫 책이라고 해서 다른 책들에 우선해서 뭔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랙을 분리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시백 위원 :**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점인 경우 배려를 한다는 것이지 특별히 가산을 한다거나 신경을 써서 선정하는 등의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기한 전고필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출판사라든가 생애 첫 책이나 신진을 후원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할애해서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

는 추세였습니다. 51억에서 56억으로요. 그런 증액 추세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그런 사업들이 명확한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출판사 선정 비율이 5.8%라는 결과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요. 다음부터는 표에 신청 종수 대비 비율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역의 출판사가 적은 것은 알지만 신청 건수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이 사안은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최소보장제라고 하면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올해 지역 쪽에서 신청한 신청률이 지금 보고가 어렵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 지역최소보장제와 별개 사업이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물론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아는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역출판사 신청현황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정리해야 하는데요. 위원 3인이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손봐서 향후 반영하겠다는 답을 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신청률 대비 선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의위원 구성 등을 보면 지역 위원들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향후 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출판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정책적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가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받고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제가 현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서면보고 보다는 일정상 시간이 되면 말씀하시고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작성이 안 되면 메일로 보고드리고 추후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알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가 12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 회의자료 12쪽이요. 5.8%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것은 선정이고요. 신청 건수 대비해서 자료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라서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업도 워낙 범위가 넓고 예산도 크고 심의총평만 해도 15쪽부터 31쪽까지 장르별로 모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참고하셔서 보고를 접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추가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심의내용인 만큼 접수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 결정의 건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인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본 사업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수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2013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까지 전국에 20개의 공연장 연습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이 끝난 사업이고요. 그 가운데 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습장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조성지를 대상으로 전문예술인과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연습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주관처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도 1월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본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올해 추진을 하게 된 사업들이고요. 연간 20개소에 가동률이 57.1% 정도가 됩니다. 사실 평균 가동률에 대한 목표치 자체는 매년 발송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지역들이 그런 대관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으로는 3~5개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이고요. 사업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개 연습장을 운영하는 지역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고요.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별로 1개소에 아르코연습공간이라는 게 조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제주와 대전에만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조성사업이 매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우량한 사업입니다. 대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비용을 지원한 이후 운영은 자치단체에 일임해서 맡겨지게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고요.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네트워킹도 하고 공통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가 지원하는 굉장히 양질의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제주와 대전에도 연습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쪽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정부와도 저희가 교섭의 창구를 열고 있고요. 오늘 보고를 받으신 대로 지역 주관처를 저희가 뽑아서, 계속해서 아르코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 각지에 있는 연습공간이 활성화되도록 잘 보듬고 살피나가며 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나머지 보고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정부안입니다.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0쪽 총괄표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내년도는 총 5,396억원으로 현재 기준 3%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지출사업비를 보시면 올해 3,656억원에서 내년도 정부안은 3,831억원으로 175억원으로 4.8%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를 보시면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이 보조사업연장평가 실집행률 저조로 인해 일괄 감액편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지원은 534억원에서 53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조금 외에 일반수용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안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사업이 확정되면서 32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술인력육성은 293억에서 326억원으로 32억원 정도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1% 증액이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 융자사업이 종료되면서 50억원을 삭감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은 보조사업 실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술의관광자원화 역시 그런 기조에 따라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향유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이 대표적입니다. 225억원 정도 증액되어 전체사업비는 17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비는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 사업비

3,831억원 그리고 기금운영비 232억원으로 내년도 전체 총 지출규모는 4,000억 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4,000억 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2023년도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입니다.

예술창작지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연장평가결과 때문에 일괄 적용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과에서도 보조사업연장평가가 나온 사업은 증액을 할 수가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의 지원되는 총량은 유지하는 쪽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문학 장르부터 보면 올해 4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문학창작산실에서 집필공간에서 1억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고요. 문학광장 리뉴얼 예산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특이소요액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자연 감소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공모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1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예술창작육성은 47억에서 47억 정도로 3,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육성은 312억원에서 284억원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국회지정사업 규모를 순감시키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허황후창작오페라' 부분에서 3억원을 감액했고 1차 심의에서 5억원 정도가 보조예산에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실제 공모예산 총량은 유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홍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공연장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1차 심의 때 14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민간제작극장 활성화 예산으로 해서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에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었으면 30억 정도 유지가 되면서 전체 총량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5,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실집행률 저조 때문에 11% 정도가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회지정사업들을 감액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예술과기술융합지원도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1차 심의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1차 심의 때 12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예술과 기술바우처지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했고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과기술융합지원은 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은 우리가 문체부 부처안 편성 시 많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연장평가 결과 때문에 증액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4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타 사업 대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의 총량은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2쪽 예술인력육성입니다.

예술인력육성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22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력육성 사업 중에서 특이소요는 예비예술인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라는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 살리기와 관련한 정책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게 예술정책과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용역이나 공감대 형성 작업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편성되는 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하는 예술인력육성에 편제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예술인력육성은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32억원 정도 증액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예술인 사업은 현재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포괄하는 사업

이기 때문에 기존 예술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었던 아카데미사업이나 일자리사업들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체계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3쪽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특별용자가 순감되면서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것이 반영되면서 1억 8,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집행률 저조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재교부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보조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재교부되는 사업들인데 2024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문체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혁신추진계획에도 반영되어서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금에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관련해서 예술지원정보안내에 보시게 되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7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부분들은 8,100만 원 정도 소폭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로문예인복지지원은 일몰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공공기관혁신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술인복지재단으로 2024년부터는 이관 편성되는 것으로 혁신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 11만 원, 그리고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이 11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체부 전체 예산은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는 작년 예산이 7조 4,000억 정도였고 현재는 6조 7,000억으로 7,000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일부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민간공연장 활성화 등 정부안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국정감사 이후 예산 국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관련해서는 복권기금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381억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먼저 선 지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문예진흥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87억원을 사업에 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568억원은 2023년도 수입예산으로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정산을 마무리하여 다시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382억 정도가 또 기재부 문화예산과하고 복권위원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체위나 예결위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요청해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수치 차는 조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적립금 규모가 올해 800억대에서 복권기금 2차 187억원이 나가면서 600억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925억원 정도 적립금이 유지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 382억이 국회에서 수치 차가 반영되면 내년도 적립금 규모는 1,300억원 대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안 편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회계 수입과 지출 부분까지 포함하여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정부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

께서 사전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의견을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견의 내용은 흥태림 위원이 제기한 청년예술가 주도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술위의 주요한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3년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청년예술가 주도 지역활성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께서 2023년도 다원예술지원 사업의 예산이 당초 한도 내 10억, 한도 외 5억 등 15억 증액을 시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한도 내 4억 증액으로 대폭 삭감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12월 전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개의 의견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원예술창작지원이나 민간지역공연장 등 공연예술 분야의 총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함께 문체위, 예결위 단위에서 증액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주도 지역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비예술인지원 사업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 그리고 2024년도에 청년예술 TF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가 반영되려면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의 설득력 등을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예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고요. 필요하시다면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외 발언이 필요하다면 논의 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 의견을 내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아까 흥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공연예술계 입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 지원사업 중에서 이 지원사업이야말로 다수의 예술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파급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현장에서 “지원사업이 너무 창작 위주로 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축소로 인해서 정말 아쉽고 지원 혜택이 컸던 것만큼 현장 예술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동시에 현장 예술계에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초 위원회 예산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보조사업연장평가를 받으면서 감액편성을 요구받는 순간에 손발이나 마찬가지인 문예진흥기금이 잘려 나가는 듯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획조정부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유례없이 2022년 7조 4,000억에 이르는 문체부 예산이 내년도에 9.3% 감액되어 6조 7,000억으로 감액편성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올해보다 내년 기금운용 재원이 줄어든 형태로 회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과 부당함에 대해 현장예술계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논리를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선을 동원해서

예산을 대략 3%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간신히 증액에 성공을 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청년예산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크게 강화하고 보강해야 할 다원예술창작지원 등 꼭 필요한 창작지원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절대 신청액 대비 대략 10건 중에서 3건을 지원하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마저 내년도에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환경을 현장 예술계에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역동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위한 비상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이를 통해 간신히 수지 회계 균형을 맞춘 예산을 예술계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부장의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결정의 권한이 정부로부터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수순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안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쟁점들 청년 관련한 신규사업, 꾸준한 증액 요청이 현장으로부터 있어 1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 있다가 결국 4억원을 증액하는 정도로 축소된 다원예술지원사업, 그리고 공연예술활성화 사업 축소는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대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축소로 인한 우려가 예측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지 균형과 관련, 위기의 문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위원회와 예술현장이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예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극한치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사무처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현장 예술계에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2023년도 예산을 정부안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사안을 정부안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오늘 접수를 받고 계속하여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접수에 이견이 없으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안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전략체계 일부 수정안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역시 기획조정부장이 보고할 텐데요. 저희가 효과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해서 짧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이어서 비전 2030 전략체계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체계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예산의 변동이나 국정과제의 변동,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비전 2030이 수립되었고요. 10월 22일 비전2030 선포식을 한 이후에 해마다 일부 전략과제를 경영환경에 맞춰서 바뀌고 있습니다. 8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비전2030은 큰 틀에서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안은 일부 수정안의 초안입니다. 초안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내용들과 예산의 변동내역 등을 반영해서 만든 조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추진 방향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정방향 재설정,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외부 정책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존 전략체계 내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국정목표 3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문화예술 분야 주요 국정 방향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제 57번과 58번이 되겠습니다. 57번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고 해

서 향유사업들,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부분들이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국정과제 58번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인데요.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에서 다년간 지원 등에 대한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쪽의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새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대한 수용 그리고 건전재정 기초 확립,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정혁신을 보시면 “코로나 한시 지출을 정상화한다.”,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그래서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한다.”라는 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연장평가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에 비해서 강하게 적용된 부분들이 이러한 기초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재검토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극대화를 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 관리체계 개편의 내용들이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경영평가는 A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략체계와 조직 간에 얼라인먼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전략체계에 대한 경영평가 지적사항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시환경 분석이나 내부 역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인식도 조사에 따라서 전략체계도 수정(안)을 도출한 부분입니다. 48쪽 하단을 보시면 기존 전략-세부과제 간 층위 조정이나 과제 내용의 구체화에서 전략체계 상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 과제를 통합하고 과제 명확화를 위한 세부과제에 대한 문구를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9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예술의 지평 확대입니다. 중간의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예술의 지평 확대에 세부 과제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강화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입니다. 극장장과 미술관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면서 역할 적립은 어느 정도 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역할 강화라는 세부과제의 문구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력 육성체계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명을 삭제하면서 ‘예술의 미래 동력 확보’라는 과제로 이동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의 지평 확대에 예술창작본부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모두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력개발원의 사업들을 조직 측면에서 ‘미래 동력 확보’ 전략과제 하위로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세부과제 삭제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감액되면서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이라는 방향은 계속해서 가야 하지만 세부과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빼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전략과제 내부 인식조사 반영 세부과제 통합인데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전략과제 밑에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이라는 2가지 세부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들의 뜻은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 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 참여라는 통합 과제명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반영한 세부과제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서 재무구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안정성 확보라는 직접적인 워딩을 썼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전체에 대한 합리화로 정책방향에서 요구하는 워딩으로 바꾸는 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 2, 3, 4가 그동안 비전2030 체계도가 해마다 롤링된 부분이고요. 54쪽의 체계도 일부 수정(안)이 앞서 설명드린 설명(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9월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5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용어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롤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 목표에 따라서 공공기관인 저희 목표가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아코비전 2030 체계도가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전면적인 체계도 개편 이전에 그것을 관장하는 체계도가 필요하기에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받으시고 9월은 추석이 끼어있어서 간담회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다른 방법으로의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고 서면의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을 진행할 때 충분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혹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향후 의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오늘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재의를 드립니다. 의결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서면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보고드립니다. 접수해 주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았고요. 이제 저희에게 남아 있는 보고사항이 2개 소위원회의 3번의 소위원회 결과보고입니다. 제17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와 제2차, 제3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받도록 할 텐데요. 제17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조강주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강주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 예, 오늘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외부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리 참석하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개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입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16일 제17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안건은 활동보고서 내용 검토와 소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소회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자료 하단에 있는 향후 일정에 보시면 활동보고서 교정 및 공람 작업이 그 사이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누리집 게시 등 발간 일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를 끝으로 성평등예술

지원 소위원회는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 제3차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활동보고서 발간 건은 검토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발간만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랙 소위원회 2차 회의록 내용 수정에 관한 건입니다. 7월 14일에 2차 회의 개최 이후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의 관련 직원들이 소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수정 등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 3차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내부 당사자들에게 수정 내용을 알리고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 2차 회의록에 함께 병기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병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2차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창작산실 관련 공지 안내문 관련입니다. 안내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에 앞서서 당사자와 사실 확인 절차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했고요. 후속조치로 위원장 명의로 감사의 사실확인 신청서 제출 등 재심요청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감사실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기억사업 관련입니다. 사회적 기업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기 전에 문제부와 이행협치추진단이 사회적 기억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참고로 3차 회의 이후 8월 31일에 4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에 관련된 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회적 기억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고 구체화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성평등 소위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TF 활동보고서는 검토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먼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개 소위원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보태셔야 할 것 같은데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보고와 관련해서 정정숙 위원님께서 조금 보완을 해 주시죠.

**정정숙 위원 :** 자료집에 2차 회의록 수정한 내용이 있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했다가 창작산실 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회의록 수정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회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2차 회의 때 주요 내용으로 “이행협치추진단 요청 감사처분보고서 관련 공지문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결과 공유”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소위원회 위원은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부 당사자에게 당시 회의 시 존재한 다른 사실들과 맥락을 생략하고, 부분적인 한 가지 사실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전체 내용의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설명했음.”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몇 가지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 하면, 공식 회의가 아니고 내부 당사자들과 메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부 당사자들이 병기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병기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내부 당사자와

에게 받은 내용을 병기 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병기해서 보고하도록 지난번 회의 때 논의하였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그래서 그 자료 내 네모 칸이 두 분이 합의해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받지 않고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포함해서 이번 회의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8월 26일 감사실에 사실관계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조강주 박사의 보고에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개 위원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2023년도 공모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중점개선 방향논의, 2022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도서 결정의 건, 2022년 공연예술연습공간 기획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주관처 공모 추진계획(안),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 확정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전략체계 일부 수정(안),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와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포함한 8개의 보고안건을 모두 일괄하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9월 정기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5.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저희가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 33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명절이 기다리고 있고요. 태풍이 몰려오며 여전히 질병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모두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좋은 명절을 맞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 33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종료)